

# 일반정보

## -21세기 원예비전과

### 특허보호-

우리는 자동차나 TV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식량(食糧)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서 보면 창조주께서 땅을 만드시고 식물(植物)을 만드신 다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관리하라고 명령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다. 지구촌의 인류는 식물자원(植物資源)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식량자원(食糧資源)의 고갈로 인해 기아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곳이 너무도 많다. 당장 북한과 이디오피아 등이 심각한 식량난으로 시달리고 있다. 식량의 문제는 식물자원(植物資源)의 관리문제로서 21세기에는 매우 중요한 산업분야를 형성할 것이다. 따라서 먹거리 문제는 21세기의 주요 하이테크산업 중의 하나인 전자통신산업과 함께 Biotechnology의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한편, 식물자원(植物資源)의 문제의 핵심은 결국 광의의 종자(種子)문제로 귀결된다. 종자의 양부는 식물의 우열에 직결된다. 따라서 식물종자의 품종개량기술은 식물재배기술 및 토양관리기술과 함께 농업·원예의 Key issue가 될 것이 분명하다.

식물종자의 품종개량에는 장기간의 노동과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식물종자의 품종개량기술과 재배기술을 위한 투자는 적절한 국가적 보호장치가 없는 한 무의미하다. 원예분야에서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재배기술을 개발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가 있어야 투자도 하게 될 것인데 이를 위하여 우리정부는 특허법을 제정하고 동법 제31조(식물특허발명)에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발명한 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예식물재배기술 및 인공도양, 비료조성물, 토양관리기법등에 대하여도 그것이 특허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에 산업상 이용할 수 있으면 특허보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유전자조작기술이 원예에 적용될 경우에 많은 신규 채소, 화훼,

과수, 임목의 육종에 의한 신품종의 출현이 가능할 것인 바 이들 발명의 특허보호 요청이 국내외적으로 쇄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보호는 비단 국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한 다음 1년 이내에 보호받고자 하는 외국 특허청에 출원하면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한 날짜를 소급하여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출원일을 인정받게 된다. 1930년 미국이 식물의 신품종 육성자를 보호하기 위한 식물특허제도를 채택하고 운용하게 된 이래 서구선진각국들도 1960년대를 전후하여 이 제도를 채택하고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유럽에서는 1968년 식물신품종의 국제적 수준의 동일범주내의 보호를 위하여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동맹(UPOV)을 결성하여 상대국 식물육성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조약에 가입하기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본틀로서 종자산업법이 제정되어 농림수산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21세기 지구촌의 식량자원의 안전한 확보를 위하여 원예계에서는 식물신품종육성기술의 개발과 식물재배기술의 혁신이 각국의 중요한 산업정책으로 부각될 것이며 장차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선박, TV 등 신기술 공산품의 해외수출에서 일어나는 무역적자를 채소, 화훼, 과수, 임목의 신품종의 해외수출에서 무역흑자를 얻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경주될 전망이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애써 개발한 식물신품종이나 식물재배기술을 특허보호받기 위하여 회원 여러분께서는 학회지에 학술논문을 발표하시기 전에 특허청에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먼저 제출해야 한다. 향후 학회가 특허법 제30조(신품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학술단체로 등록된 때에는 학회지에 학술논문을 발표한 후 6개월 이내에만 특허출원되도록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예컨대, 다음 기술들이 특허보호받을 수 있다. 장미의 신품종, 우량배씨종자, 감자의 조직배양법, 니코틴이 저감된 담배종자, 당도가 증가된 배, 백합종묘의 대량증식방법, 슈퍼포도, 식물조직배양용 배지, 장미의 아칭(arching)재배법, 향종양성식물의 제조방법, 식물조직 배양에 의한 알칼로이드 물질의 생산방법, 지치과 식물의 조직배양법, 약용인삼의 조직배양법, 감의 선발육종법



● 예일특허법률사무소 소장: 이덕록(변리사)

전화: 02-555-1717, 팩스: 555-1784

미국의학잡지(JAMA) 금년도 4월 16일자에 발표된 조사자료에 의하면 최근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숨기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총 2167명의 생명과학자들을 조사해 보았는데 응답자 중 140명이 학술논문발표를 늦추고 있었고, 181명은 자료나 재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이유는 아래의 표에서처럼 매우 다양하다. (1997년 4월 25일자)

#### 연구자들이 왜 숨기는가?

연구자들이 발표를 늦추는 이유	학계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허출원시간을 벌기 위해 46%</li> <li>경과에 대한 소유 또는 재정적 가치 보호를 위해 33%</li> <li>조사자의 과학적 우세를 보호하기 위해 31%</li> <li>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의 유포를 늦추기 위해 28%</li> <li>특허인가협약 시간을 벌기 위해 26%</li> <li>지적소유권에 관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1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적 우세를 지키기 위해 46%</li> <li>너무 비싸거나 드문 경우 27%</li> <li>회사와의 비공식 협약에 의해 18%</li> <li>대학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6%</li> <li>회사와의 공식협약에 의해 4%</li> <li>자신의 재정적 이익 보호를 위해 2%</li> <li>기타 45%</li> </ul>